

“조리실무사 구합니다” …학교 급식실 구인난 심각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학교마다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난 배경에는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이다. 인원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기존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도 조리실무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상향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리실무사를 35명을 공개모집했으나 21명만 채용되고 14명이 결원됐다. 미달된 조리실무사는 각

공개채용서 ‘미달’ 잇따라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 낮아

폐암 위험 등 문제도 수면

31일 새학기 총파업 예고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기간제 인력으로 채웠다. 이날 현재 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란에는 조리원 신규 또는 대체 채용과 관련한 12건의 공고가 등록됐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구인난은 전국이 비스

한 상황이다.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임금, 폐질환 등이 꼽힌다.

조리원은 평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매일 대용량의 식재료를 수시로 운반해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대형 조리기구로 사용해 수백명 분의 음식을 만든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는 열악하다. 조리실무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직종’ 중 2유형으로 조리사는 196만여원, 조리실무사는 186만8,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수당 등을 합쳐도 별이가 안 된다면서 일반 식당 등으로 직장을 옮기기 일쑤다.

최근 조리실무사 발생으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 폐암 위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인

력은 급식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들이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2명 등 5명이 폐암에 확진됐다. 광주는 전체 수검자 1,185명 중 327명(27.5%)이 이상 소견을 받았다. 전남도 전체 수검자 2,190명 중 565명(25.7%)이 이상 소견을 받았다.

시교육청도 조리실무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전담직원과 미화

원 구인난으로 안정적인 학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인력풀 운영 등 여러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로자 채용 방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업무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는 조리원이 많아 갈수록 조리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다”며 “오는 4월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1일 새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황애란 기자



캠퍼스의 봄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전남대 잔디광장에서 삼삼오오 둘러 앉은 학생들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봄맞이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일제강제동원 대리인단,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금 소송’

“가집행 판결 났든 바로 배상될 듯”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다.

1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전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자는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사망한 피해자 1인의 유족)다. 관련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대리인단 측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기존에 현금화 절차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다르

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원고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경찰, 직무관리 자가진단... ‘감찰카드 부활’ 반발

경찰청이 현장 관리자의 직무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시행을 예고하자 ‘감찰카드’의 부활이라는 내부 반발이 나온다.

서강오 무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이 자가진단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 어두웠던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며 밝혔다.

서 위원장은 “감찰카드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경찰 내부의 일상적인 감시, 분열, 통제 의 기제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서장, 과장, 지구대장, 팀장 등 각급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직무관리 자가진단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급 관리자는 112 신고, 수사 사건 처리, 상황 보고, 비상 대비, 지시 이행, 교육, 훈련 등 직무관리 주요 점검 사항을 설문 응답 형태로 자가진단표에 기록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이를 두고 경찰 개인의 모든 징계 기록과 버릇 등 사생활, 주변 평가까지 상세히 기록해 인사자료로 쓰였던 감찰카드의 부활이라고 우려했다.

감찰카드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속에 1999년 폐지됐다.

서 위원장은 “감사, 감찰, 인사자료로도 활용될 직무자가진단은 시대에 역행하는 불온한 시도”라며 “시행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관련 지적이 내부 게시판에 잇따르자 이영철 감사담당관 명의로 해명 글을 올려 “전 세계 경찰기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리 역할을 계율리하는 일부 관리자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오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구, 지산유원지 무허가 놀이시설 대표 고소

행정 허가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운영한 광주 지산유원지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16일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5일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산유원지에서 모노레일과 리프트를 운영해 온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 설치해 동구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

청을 제출했지만 안내소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해 반려됐다.

업체는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 다시 허가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6일 허가했다. 그러나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새로 설치한 놀이기구에 이용객을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놀이기구를 탄 일반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다. /김혜린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이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이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광주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이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상가) ▶ 감정이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오치동 (주택) ▶ 감정이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월산동 (주택) ▶ 감정이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상가매매 (상무지구)

-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월수익 380만)

010-2614-9801

010-6670-9800